

넥스트바이오메디컬

시장변동성이 커진 것일 뿐 펀더멘탈은 더 강해졌다

- 독일에서 2년간 전국 단위 무릎동맥색전술 2,335건에 대한 임상 논문 발표
- 무릎동맥색전술과 일시적 색전물질 채택 확대를 동시에 확인

독일에서 2년간 전국 단위 무릎동맥색전술 2,335건에 대한 임상 논문 발표

독일중재영상의학회(DeGIR) 레지스트리를 활용해 '24~'25년 109개 독일 병원에서 시행한 무릎동맥색전술(GAE) 2,335건을 분석한 논문이 CVIR에 발표됨. 기술적 성공률 92.6%, 합병증 11건(0.47%). 시술 관련 영구 후유증이나 사망은 보고되지 않음.

무릎동맥색전술과 일시적 색전물질 채택 확대를 동시에 확인

① GAE 시장의 실제 확산 확인: 연간 등록된 무릎동맥색전술 건수는 '24년 579건(48개 병원)에서 '25년 1,756건(109개 병원)으로 전년 대비 203% 증가. 기존 넥스피어F 논문들이 개별 제품의 임상 근거(통증 개선 효과)를 축적했다면, 이번 연구는 해당 제품이 진입하는 치료 시장의 확대를 보여준다는 점에 주목함. 특히 병원당 시술건수도 12.1개에서 16.1개로 전년대비 34% 증가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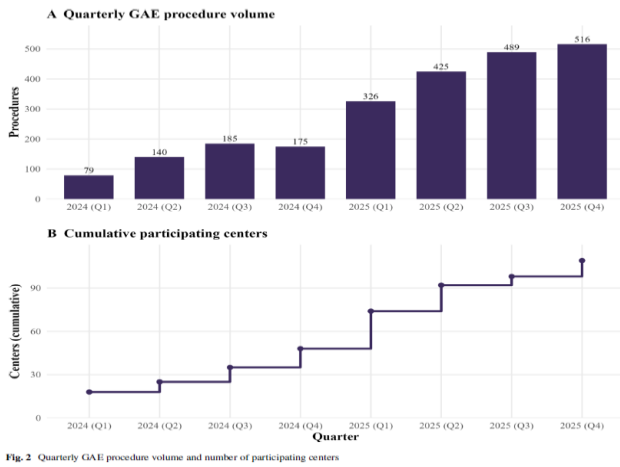
② 일시적 색전재 채택 증가 확인: 일시적 미립구(넥스피어F 추정) 사용 시술은 '24년 25건에서 '25년 50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 일시적 미립구 사용비중도 전체시술의 4%에서 29%로 상승한 반면, 영구 미립구 사용비중은 '24년 40%에서 '25년 21%로 하락. 다만, 2년간 전체 시술의 47.5%(1,109건)에서 색전재 정보가 미기재돼 상술한 비중을 실제 색전재별 사용 비중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③ 인공관절 수술 후 통증에서도 사용 가능성 확인: 전체 시술 중 300건(13%)은 인공무릎관절 치환술을 받은 환자에서 시행했으며, 기술적 성공률 95%. 기존 퇴행성 관절염 외 수술 후 지속 통증에서도 GAE가 실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

동사는 핵심 임상시험 RESORB를 통해 넥스피어F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동시에 고관절 골관절염, 스포츠 손상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기존 논문들이 넥스피어F의 임상적 가능성과 조직 안전성을 뒷받침했다면, 이번 연구는 GAE 시장 성장과 일시적 색전물질의 채택 확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업화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데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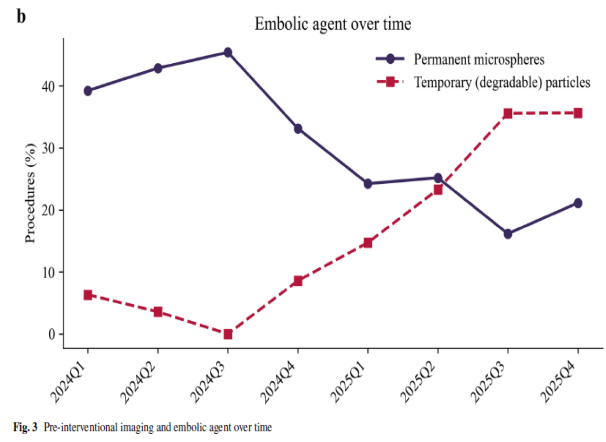
동사의 주가는 연초대비 70% 가까이 하락하였으나, 이는 시장변동성 확대와 테크 섹터로의 수급쏠림 현상이 주된 요인으로 동사의 펀더멘탈 훼손으로 보기 어려움. 의료기기 기업의 펀더멘탈은 임상논문으로 증명되며, 동사는 꾸준히 임상근거(지난 5월 12일, 6월 18일 보고서 참조)를 축적하고 있음. 동사는 한국에서 손에 꼽히는 혁신 융복합 의료기기 기업으로 과도한 우려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그림 1. 분기별 무릎동맥색전술 시술 및 시술센터 추이



자료: Taheri Amin et al., CVIR, 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영구 색전술 vs. 일시적 색전술 비중 변화 추이



자료: Taheri Amin et al., CVIR, 2026,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